

‘춘설차밭 복원, 충장상권 살리기’ 광주 동구 주요 사업 배격

광주 동구가 추진하는 춘설차밭 복원과 핵점포 육성 등 주요 사업이 담보 상태에 머물거나 지연돼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하나로 무등산 춘설차밭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춘설차밭과 외제 문화 유적지를 복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관광 명소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통 재배 방식을 적용한 차나무 복원과 차나무 주변 생태 환경 정비,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경관 조성,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로 진

춘설차밭, 사업부지 사용허가 차질에 6개월 지연

충장로 핵점포 육성사업, 임대료 협상 난항 ‘담보’ 행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차밭 복원 공사에 돌입하려던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허가·승인 등 사유지와 국공유지 사용허가 절차가 늦어졌다. 지난해 5월 수립했던 차밭 진입로 공사 기본계획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뒤늦게 진일보 설계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추진됐다.

춘설차밭 복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 약 6개월 상당 지연됨에 따라

2027년까지 복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구가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역점 사업 ‘핵점포 육성 사업’ 역시 담보 상태다.

동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장로 1~3가 상권 빈 상가에 점포를 유치, 핫플레이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핵점포 육성 사업 예산 중 2억원 상당을 투입해 올해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던 ‘홍콩의 거리’ 조성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빈 점포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홍콩식 레스토랑·주점·디저트 카페 등 점포를 입주 시키려 했으나 막판 임대료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동구는 사업이 지연됐으나 건물주와 입주자 간 임대차 계약을 마친 뒤 오는 5~6월에는 홍콩의 거리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대료 협상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춘설차밭 복원 사업은 부지 확보와 법률 검토 등 과정이 지연돼 늦어졌다.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핵점포 육성 사업 역시 조만간 임대료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심치숙 교육자치과장과 교육자치과 직원들이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는 선언문이 적힌 팻말을 들어보고 있다.

‘전남형 작은학교·학생교육수당’으로 학령인구 감소 극복

전남교육청 교육자치과,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전남교육청 심치숙 교육자치과장과 직원들이 14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이다.

전남교육청 교육자치과에서는 ▲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사업 ▲ 전국 최초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 전남 농산어촌유학 ▲ 인구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 학령인구 감소 및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저출산 고

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교 소멸만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이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에서는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 전남교육’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전남형 작은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치숙 과장은 영광교육지원청 정병국 교육장 지명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다음 참여자로 함평교육지원청 박정애 교육장과 전남학부모회연합회 이희진 회장을 지목했다. /염성호 기자

“수사 진척 더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전남경찰에 항의서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의 수사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공식 항의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닌, 대한민국 항공안전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참사 이후 경찰 수사 과정을 밟고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나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가족은 점점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사지어 남는게 없다!

₩ 53,000원 수매 지금 나락값 65,000원

농민 등쳐먹는 RPC는 해체가 정답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광주농민회가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통합미국중합처리장(RPC) 앞에서 농민회 영농발대식을 열고 RPC의 쌀 저가매입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광주농민회 “나락 저가수매 광주RPC 규탄”

“타 지역보다 조곡 한가마니 2000~3000원 낮게 수매”

광주 농민들이 광주통합미국중합처리장(광주통합RPC)을 향해 나락값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농민회는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통합RPC앞에서 농민회 영농발대식을 열고 “나락 저가 매입하는 광주통합RPC를 해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민회는 “광주RPC는 매년 광주에서 수확된 조곡 40kg가격을 타 지역보다 2000~3000원씩 낮게 수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RPC는 나락값을 시중에 유통되는 값보다 낮게 책정해 앞장서 버값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국처리장 경영 특성상 쌀 가격에 원료곡을 매입해야지만 경영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나락값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통합RPC대표와 14개 농협 조합장들은 수매에 따른 이익이 나면 출하 농가에 배분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어느 순간 순이익을 농협이 나눠 가지고 있

다”며 “쌀 가격에 수매한 농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이익 분배를 촉구했다.

통합RPC는 농협광주본부 산하 14개 농협이 공동출자에 2008년 출범했다. 수확기 농가에서 생산하는 지역 쌀을 매입·가공해 판매하면서 정부의 수매 기능을 보완한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교육청, 교육공동체와 소통 확대 청렴도 제고

광주교육청은 청렴한 광주교육 구현을 위해 ‘2025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청렴 인프라 구축,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 등 3대 추진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 5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지난해 청렴도 하락의 주원인으로 분석된 외부제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민 체감형 청렴정책을 운영한다.

우선 학교운동부 청렴도 확대를 위해 학부모 소통·참여활동을 강화한다. 학부모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관리자·학교운동부 담당자와 함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청렴상태를 점검한다.

또 1종목 1감사관 배치를 통해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자정작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과후학교는 외부강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은 운송용역 입찰 및 계약 시 공동수급 확대, 계약서류 간소

화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인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청렴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반부패·청렴 추진협의체를 꾸리고, 교직원으로 구성된 청렴 서포터즈를 조직해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펼친다.

그 동안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청렴 노력도 평가는 올해부터 분청 각 부서까지 확대하고, 1기관(부서) 1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도록 한다.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 분야는 교직원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자료 공개를 확대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일시적인 성과보다 지속적인 신뢰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청렴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통일화물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통일화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